인간의 성격은 변화할 수 있을까?

심리 성향 데이터를 활용한 인간의 성격 유형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분석

1조 김종민, 유영서, 장준혁, 이재우, 최윤서, 황진우

Contents



O1 데이터 소개

02 주제 선정 과정 소개

03 데이터 분석 결과

04 결론

05 한계점

06 출처

1. 데이터 소개

데이터 구성 소개; 심리 성향 테스트지



성격 특성

Big-five와 관련된 10가지 성격 질문 에시) 나는 내 자신이 <u>활발하고 열정적</u> 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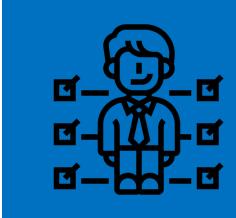
1-7점으로 표시 (1: strongly disagree)



마키아벨리 성향 응답내용+시간

예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응답내용: 1-5점으로 표시(1: disagree) 응답시간: 상대적인 척도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대

교육수준

형제자매수

성별

혼인상태

종교 등등



단어의 정의를 묻는 질문

실존하는 단어 13개와 허구인 단어 3개로 구성

데이터 구성 소개



성격 특성

Big-five와 관련된 10가지 성격 질문 예시) 나는 내 자신이 <u>활발하고 열정적</u>
이라고 생각한다.

1-7점으로 표시 (1: strongly disagree)

Big-Five란?

- 요인분석에 기반한 특성이론
- 사람들의 성격이 공통적으로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요인은 개인의 성격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까지 폭넓게 설명함.

측정도구

-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Ten Item Personality Inventory(TIPI)로 측정
- 5개의 성격차원을 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활발하고 열정적인	비판적이며 논쟁을 좋아하는	신뢰할 수 있고 자기관리가 가능한	불안하고 화를 잘 내는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복잡다단한지
내성적이고 조용한	동정심이 많고 다정한	계획적이지 않고 조심성 없는	침착하고 기복이 적은	변화를 싫어하며 창의적이지 않은

데이터 구성 소개



마키아벨리 성향 응답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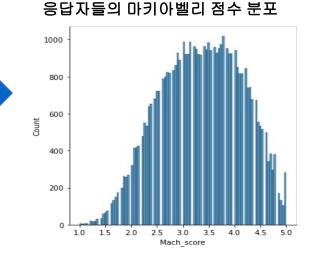
예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응답내용: 1-5점으로 표시(1: disagree) 응답시간: 상대적인 척도

마키아벨리성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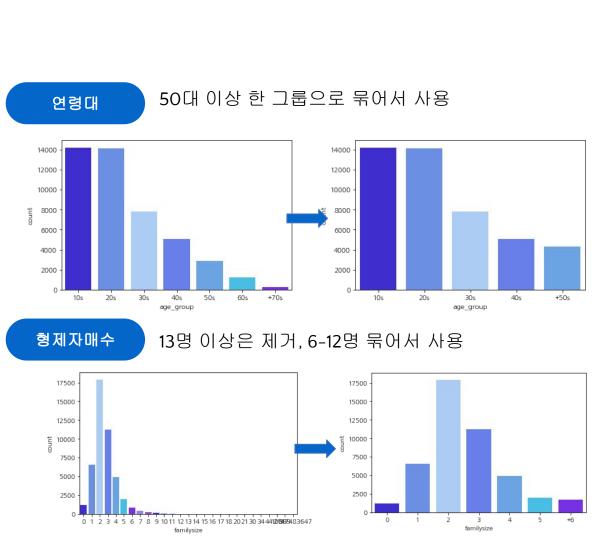
- 마키아벨리주의는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u>어떠한 수단이나</u> 방법도 허용된다는 국가 지상주의적인 정치 이념
- · 심리학에서는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조종하려는 욕구를 의미
- · 성격심리학자 델로이 폴허스가 제시한 어둠의 삼원(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해로운 성향을 지닌 세 가지 성격) 중 하나
- 타인을 교묘히 조종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며, 도덕보다 이해관계를 우선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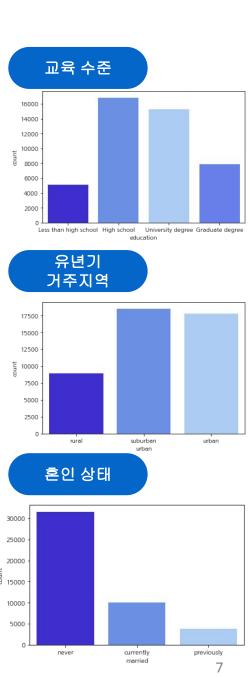
마키아벨리 테스트 질문지 응답내용을 통해 개개인의 마키아벨리 성향 스코어를 계산가능



데이터 구성 소개







데이터 활용 방안









- 심리 데이터의 장점은 '응답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특징'(종교, 유년기 거주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 심리관련 설문 응답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나 점수자체 볼 수 있음
- 더불어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징들에 기반한 성격 및 심리 분석이 가능함

2. 주제 선정 과정

주제 선정 배경

"지금, 내가 중요해" MZ세대 소비 키워드 셋…욜로·미닝아웃·플렉스

입력 2022.07.25 03:00

'가치관 뚜렷·공정성 중시'가 MZ세대 특징이라고?

안선영 기자 | 입력 2022-03-30 12:00

[이슈포커스] MZ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下-문화생활)

'세상의 중심은 나'… 자기애 뚜렷한 MZ 세대 문화

최신 트렌드에 민감... 핫플레이스 찾아가는 '인싸'

퇴근 후 취미생활... "경험과 기록이 내 인생 모토"

원데이클래스 참여... 느슨한 연대 속 자유로움 추구

CNN "실패 두려운 한국 MZ세대… 연애까지 MBTI 성격검사에 의존"

가가

오늘의 주요뉴스

빅데이터로 2030세대 마음 속을 들여다보니…

음 전시현기자 │ ② 승인 2017.12.28 23:22 │ ♥ 댓글 0

2030, mz세대 특성 등과 같이 연령대를 특성 지어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규정하는 기사들

2030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 특성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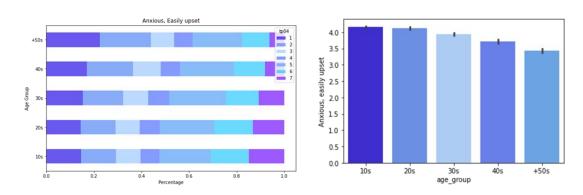
우리의 통념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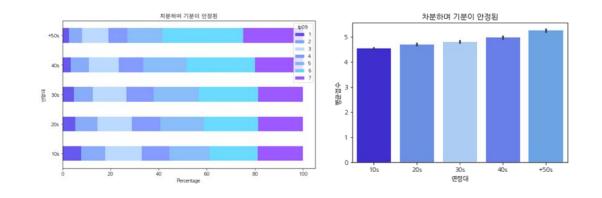
2030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대에 따라 성격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자"

연령대에 따른 성격특성 변화 에시:신경성





tp09: 차분하며 기분이 안정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안한 성격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함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차분되고 안정된 성격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증가함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경성 성격 특성이 감소한다

why?

- 범불안장애 발병연령 분포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범불안장애 발병률이 줄어듦
-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교 그레이엄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가 노년이 될수록 덜 신경적이고 유해짐.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유가 생기고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라고 예상됨

연령대에 따른 성격특성 변화

Big-Five 종합

변화 정도 표시

연령대가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O

연령대가 성격 특성에 약간 영향을 미쳤다 △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활발하고 열정적인	비판적이며 논쟁을 좋아하는	신뢰할 수 있고 자기관리가 가능한	불안하고 화를 잘 내는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복잡다단한지			
내성적이고 조용한	동정심이 많고 다정한	계획적이지 않고 조심성 없는	침착하고 기복이 적은	변화를 싫어하며 창의적이지 않은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성격특성 변화 경향성							
외향성 증가	친화성 증가	성실성 증가	신경성 감소	개방성 증가			

연령대에 따른 성격특성 변화 Big-Five 종합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향성 증가	친화성 증가	성실성 증가	신경성 감소	개방성 증가

2030에 두드러지는 성격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X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성격특성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성

이와 같은 나이에 따른 성격 특성 변화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내재적 성숙이다

why?

여러 문화권에서 나이에 따른 성격5요인 변화가 유사하다는 점 등에서 코스타와 맥클레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성격변화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숙에 의한 발달적인 변화, 즉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주제 선정

나이에 따른 Big-Five 성격 특성 변화는 생물학적이고 선천적인 요소

하지만, 한국은 선천적인 특성보다는 노력이 더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후천적인 것이 강조됨.



후천적인 영향으로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데이터에 포함된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과연 성격특성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

교육수준

혼인상태

형제자매수

유년기 거주지역

프로젝트 타임라인

7/12	7/19	7/26	8/2
데이터 선택 및 일정 수립			
	1차 데이터 분석 및 보완점 공유		
		2차 데이터 분석 및 역할 배분	
			최종 수합 및 발표 준비

주차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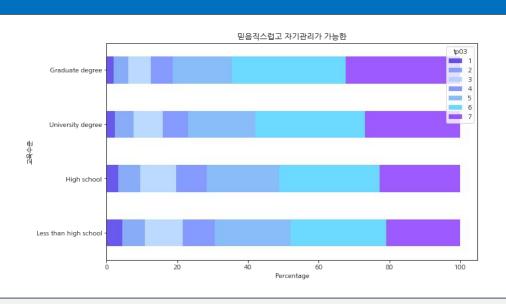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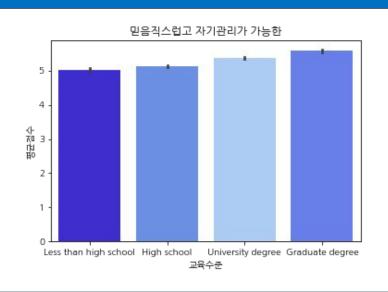
- 1주차 : 각자 관심가는 변수를 선택하여 pivot table을 활용한 자율적 분석
- 2주차 : 분석 주제 선정, 연령대 별 특성 분석
- 3주차: 연령대 별 심리성향 응답 성향 분석, 환경적 요인에 따른 응답 성향 분석
- 4주차: 최종 정리 및 역할에 따른 업무 수행

3. 데이터 분석 결과

1) 교육수준

영향을 크게 받는 성격특성 1 - tp03 믿음직스럽고 자기관리가 가능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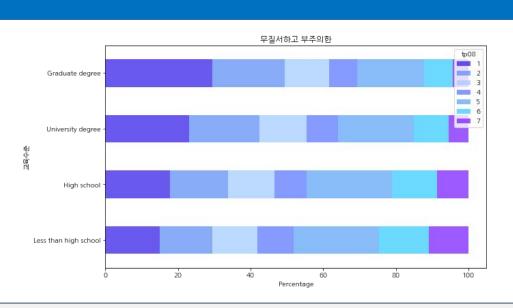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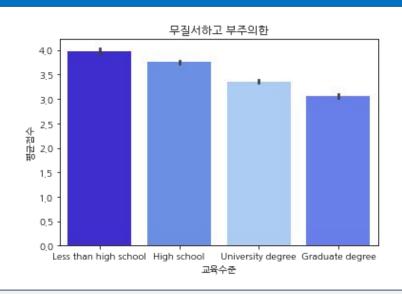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 논문에 따르면, 대학교 안에서도 학년에 따라 자기조절능력 (자기 관리가 가능한 성격)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학력자일수록 자기 관리가 가능한 성격특성을 더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아는 것이 많아져 본인을 신뢰할 수 있는 성격으로 판단하는 경향성도 높아질 것이다.

1)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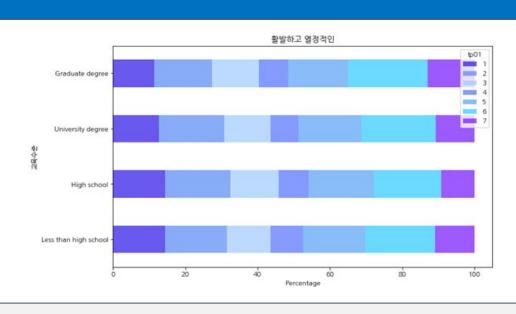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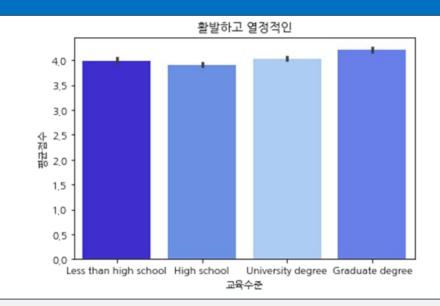
교육수준에 높을수록 비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환경 및 수업 적응과 신경성 요인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학교 환경 및 수업 적응이 높을수록 더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낼 것이고, 이들은 덜 부주의하다고 볼 수 있다.18

1)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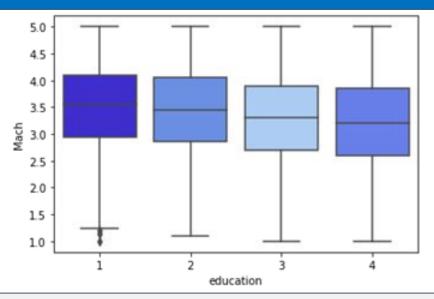


교육수준에 따라 외향적인 성격특성은 큰 차이 없다

1) 교육수준

- 1: Less than high school
- 2: High school
- 3: University degree
- 4: Graduation degree

마키아벨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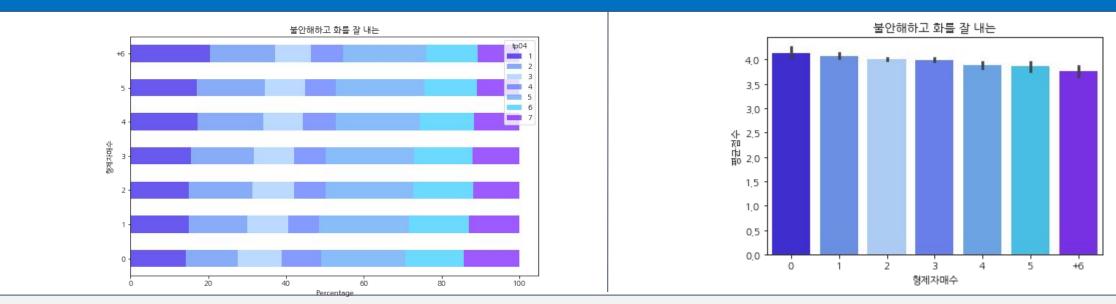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마키아벨리 점수가 낮게 나온다

이유: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남을 속이거나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진실된 자세로 임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허용된다는 마키아벨리 성향이 더 적게 나타날 것이다.

2) 형제자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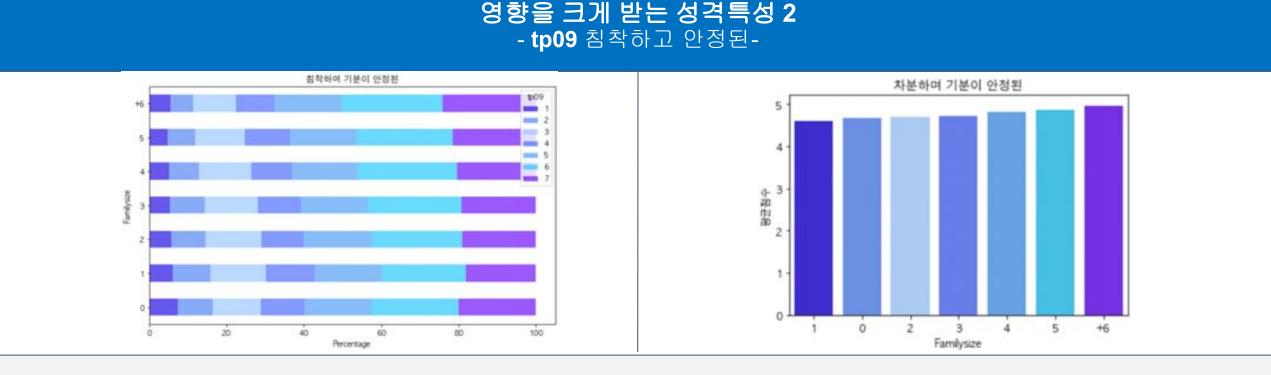
영향을 크게 받는 성격특성 1 - **tp04** 불안해하는 화를 잘 내는 -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불안해하는 성격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유: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들고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고 자기 관리가 가능한 성격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또한, "형제자매가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외동인 아이들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형제자매 여부가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 관리 늦 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안해하는 성격은 감소하는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2) 형제자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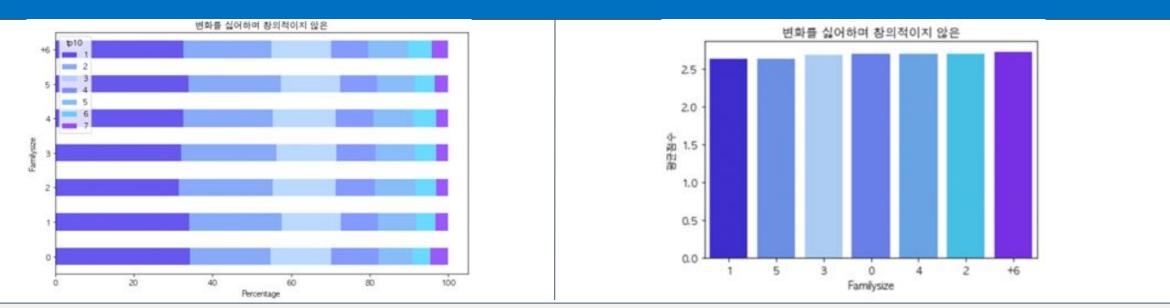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자신이 침착하며 기분이 안정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유: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유년기부터 사람간의 관계 형성을 일찍 시작하고 그에 따라 애착, 의지할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주변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경성이 덜 할 수 있다

2) 형제자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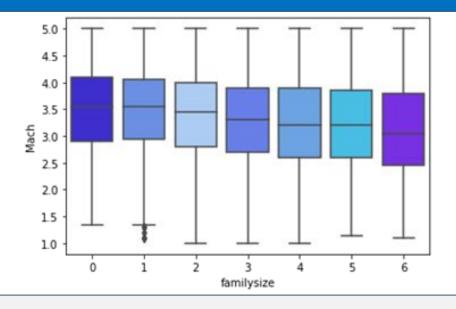




형제자매 수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상관성이 없다

2) 형제자매 수

마키아벨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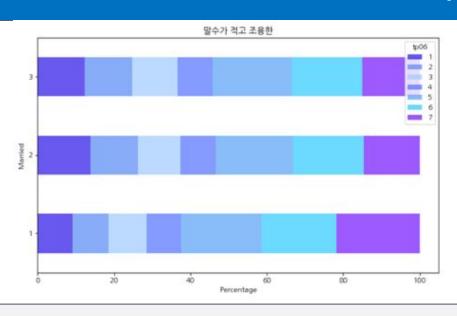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마키아벨리 점수가 낮게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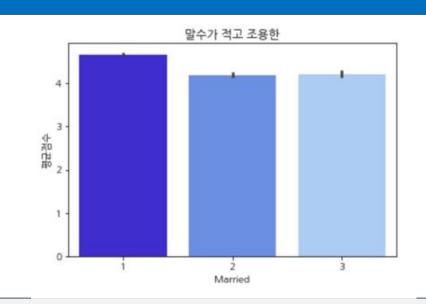
이유: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일찍부터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과 공동체 생활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이기적인 성향이 낮게 나온 것으로 예측된다 24

3) 혼인 상태

1: 미혼 2: 기혼 3: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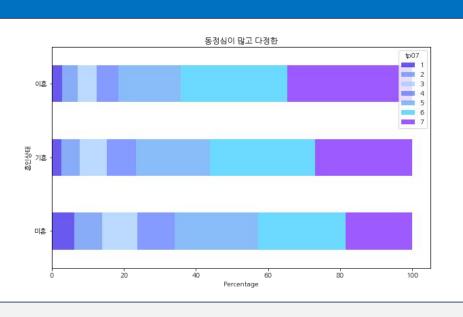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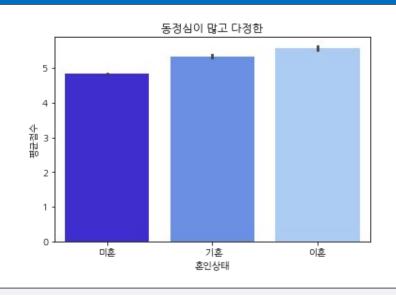
조용한 질문에는 결혼한 사람 vs 하지않은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유의하게 조용하고, 결혼 시기에 관계없이 결혼한 사람들은 답변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다 이유:Big 5 성격특성 중 외향성은 결혼만족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논문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때, 반대로 결혼한 사람 중 내향적인 성격특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적게 나온 것으로 예측된다

3) 혼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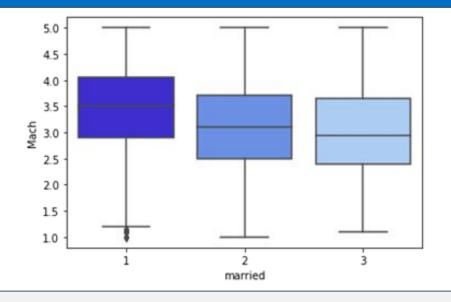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본인이 동정심 있고 다정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이유: 뉴스 기사에 따르면, 결혼의 필수조건은 행복, 서로에 대한 마음, 신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인 것으로 보아,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위 성격특성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26

3) 혼인 상태

1: 미혼 2: 기혼 3: 이혼

마키아벨리 점수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점수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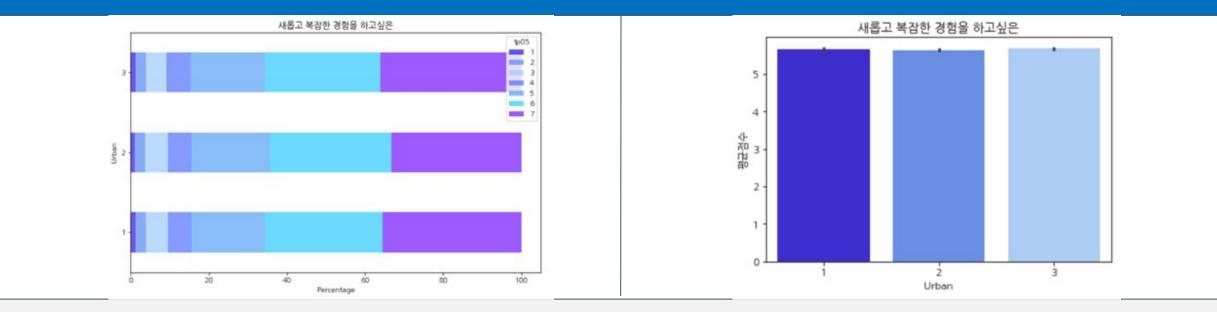
이유: 앞서 언급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결혼의 필수조건 중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기적인 경향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4) 유년기 거주지역

1: Rural 2: Suburban

3: Ur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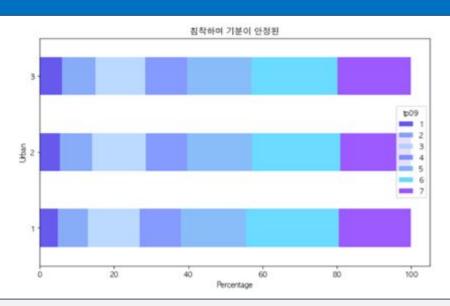
유년기 거주지역은 새롭고 복잡한 경험을 하고싶은 성격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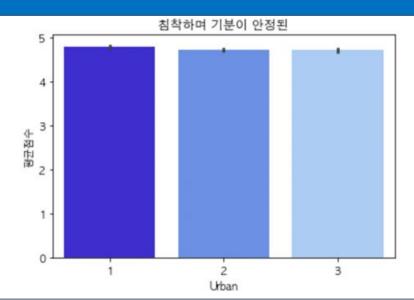
4) 유년기 거주지역

1: Rural 2: Suburban

3: Ur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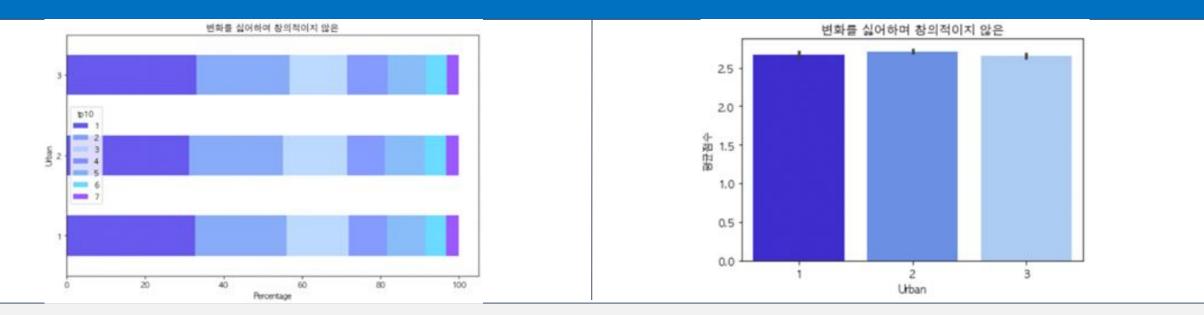
유년기 거주지역은 침착하며 기분이 안정된 성격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는다

4) 유년기 거주지역

1: Rural 2: Suburban

3: Ur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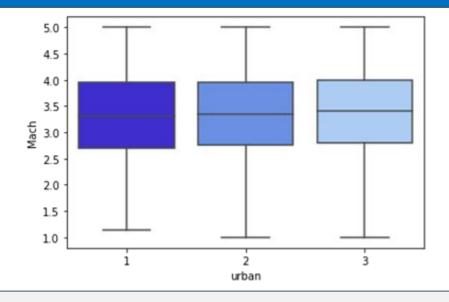
유년기 거주지역은 보수적이고 창의적이지 않은 성격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는다

4) 유년기 거주지역

1: Rural 2: Suburban

3: Urban

마키아벨리 점수



유년기의 거주지역은 성격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0 영향을 미쳤다

Δ 약간 영향을 미쳤다

🛑 X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	교육 수준	형제자매 수	혼인상태	유년기 거주지역
외향성	tp01 활발하고 열정적인	•			•	•
	tp06 말 수 가 적고 조용한					•
친화성	tp02 따지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잘하는					
	tp07 동정심 있는, 다정한					
성실성	tp03 믿음직스럽고 자기관리가 가능한					
	tp08 무질서한, 부주의한					32

0 영향을 미쳤다

Δ 약간 영향을 미쳤다

🛑 X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	교육 수준	형제자매 수	혼인상태	유년기 거주지역
	tp01 활발하고 열정적인	•			•	•
외향성	tp06 말 수 가 적고 조용한					
친화성	tp02 따지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잘하는	•				
	tp07 동정심 있는, 다정한	•			•	•
성실성	tp03 믿음직스럽고 자기관리가 가능한	•			•	
	tp08 무질서한, 부주의한	•	•		•	33

0 영향을 미쳤다

△ 약간 영향을 미쳤다

X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	교육 수준	형제자매 수	혼인상태	유년기 거주지역
신경성	tp04 불안하고 화를 잘 내는	•	•	•	•	•
	★ tp09 침착하고 기분이 안정된					•
경험에 대한 개방성	tp05 새롭고 복잡한 경험을 원하는					
	tp10 변화를 싫어하며 창의적이지 않은					
	마키아벨리 점수		•			34

O 영향을 미쳤다

🛑 🛆 약간 영향을 미쳤다

🛑 X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결론

기존 연구 (쌍둥이 연구)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의 성격에 우리가 자라면서 겪는 **환경적 경험**보다 선천적, 유전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실험 방법

Research Report

Happiness Is a Personal(ity) Thing

PSYCHOLOGICAL SCIENCE

The Genetics of Personality and Well-Being in a Representative Sample

Alexander Weiss, 1 Timothy C. Bates, 1,2 and Michelle Luciano 1,2

¹The University of Edinburgh and ²Genetic Epidemiology Unit, Queensland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Brisbane,

ABSTRACT-Subjective well-being is known to be related to positive outcomes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Curpersonality traits. However, to date, nobody has examined rently, the origins of this important construct are only just bewhether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share a ginning to be understood, an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common genetic structure. We used a representative sam- to investigate its determinants. ple of 973 twin pairs to test the hypothesis that heritable Numerous studies have shown that subjective well-being is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re entirely accounted related to the Five-Factor Model (FFM) of personality, espefor by the genetic architecture of the Five-Factor Model's cially the domain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Conscipersonality domains. Results supported this model. Sub- entiousness, and that, although subjective well-being is not jective well-being was accounted for by unique genetic subsumed by personality, the two constructs are reliably corinfluences from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Consci-related (DeNeve & Cooper, 1998). At a psychological level, ntiousness, and by a common genetic factor that influ-several plausible mechanism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enced all five personality domains in the directions of low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Neuroticism and high Extraversion, Openness, Agree- For example, some researchers (Cantor & Sanderson, 1999; 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These findings indicate Carver & Scheier, 1990) have emphasized the roles of Extrathat subjective well-being is linked to personality by common genes and that personality may form an "affective" respectively. Others have proposed that the relationship arises reserve" relevant to set-point maintenance and changes in from indirect, instrumental effects of personality on the expe set point over time.

Across cultures, people rate subjective well-being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ir life and more important than material. success (Diener, 2000). Subjective well-being is associated with numerous positive outcomes, including, for example, good work performance and health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Moreover, subjective well-being appears not only to track life events, but also to play a causal role in the achievement of

Address correspondence to Alexander Weiss, Department of Psychology, School of Philosophy, Psychology, and Language Sciences, The University of Edinburgh, 7 George Square, Edinburgh EH8 9.1Z. United Kingdom, e-mail: alex, weiss@ed, ac.uk.

riences an individual encounters (McCrae & Costa, 1991).

Major life events, as well as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re also 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leave much of the variance in subjective well-being unexplained (see Diener, Lucas, & Scollon, 2006, for a review). Findings from numerous studies of personality show that genetic effects account for approximately 50% of the variance in the FFM domains (Bouchard & Loehlin, 2001), and variance in subjective well-being also appears to be moderately heritable. In a seminal twin study using the Well-Being scale of the Multiphasic Personality Questionnaire, Lykken and Tellegen (1996) found that approximately half of the variance in well-being resulted from nonadditive Gene × Gene interaction effects, and that common environmental effects shared by twins did not lead to more similar levels of happiness. Similarly, Nes, Røysamb, Tambs, Harris, and Reichborn-Kiennerud (2006) found that

• 일란성 쌍둥이

- 유전자 동일
- 한 사람 입양
- 다른 환경에서 성장

• 이란성 쌍둥이

- 유전자 50% 공유
- 같은 환경에서 성장

성인이 된 후, 위 경우처럼 다른 환경의 두 쌍둥이 성격 특성 비교



실험 결과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환경에서 자람)

> 이라성 쌍둥이 보다 (같은 환경에서 자람)

모든 성격 특성에서 유의미하게 비슷

이 결과가 성격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성격특성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찾을 수 있음 인간의 초창기 성격의 형성에는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끼침 그러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개인의 성격 내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

Volume 19-Number 3 Copyright © 2008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다른 연구



Big 5 성격특성은 살아가며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에 영향 줌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성격은 변화할 수 밖에 없음

영향을 주는 분야	관련 연구
취업 / 고용 상태	FRUYT, F. I. L. I. P., & MERVIELDE, I. V. A. N. (1999). RIASEC types and big five traits as predictors of employment status and nature of employment. Personnel Psychology, 52(3), 701–727.
직업 적성 & 소득	Denissen, J. J., Bleidorn, W., Hennecke, M., Luhmann, M., Orth, U., specht, jule, & Zimmermann, J. (2017). Uncovering the power of personality to shape income.
승진 여부	Solomon, B. C., & Jackson, J. J. (2014). The Long Reach of one's spouse. Psychological Science, 25(12), 2189–2198.
이혼율 & 사회적 성취	Roberts, B. W., Kuncel, N. R., Shiner, R., Caspi, A., & Goldberg, L. R. (2007). The power of personality: The comparative validity of personality traits, socioeconomic status, and cognitive ability for predicting important life outcom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4), 313–345.

우리의 결론

BIG5는 취업, 소득, 승진여부 등에 크게 영향을 끼침 따라서 위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 유리한 성격특성 가지는 것 중요

BIG5 성격 특성의 구성요소에서 각각의 장점 발달시키고 단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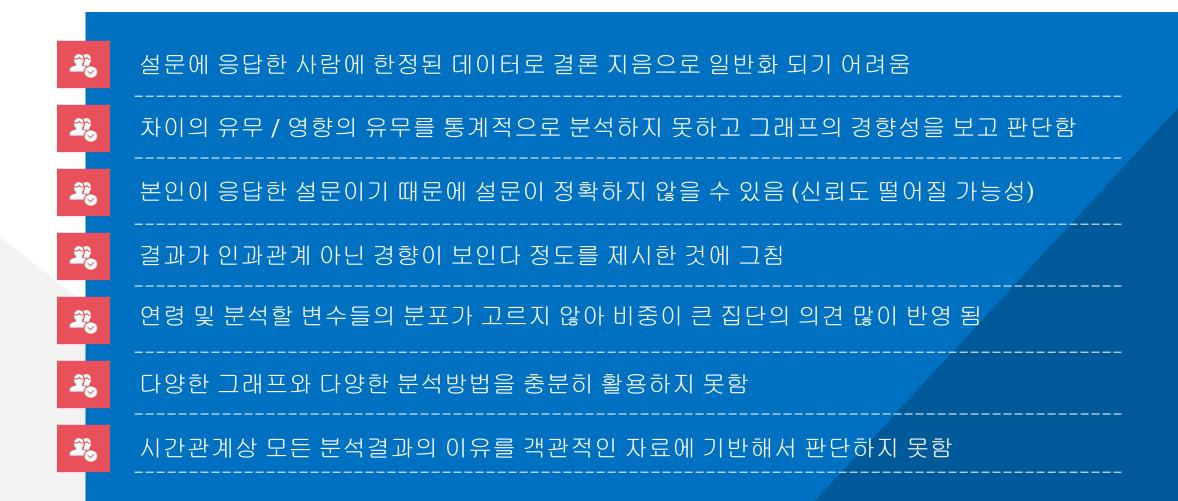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격 특성은 여러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앞선 것들을 성취하기 불리한 성격일지라도, 환경적 요소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임

5. 한계점

한계점



출처 및 참고자료

내용	링크 	
BIC5 설명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106737199273.pdf	
도입부 활용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147269i https://www.ajunews.com/view/2022033009181168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07/25/H37LI33AIVAQNDC6BX2BQHGV3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61003 https://www.industrynews.co.kr	1
분석결과 활용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1012001412 https://multiiq.com/bbs/board.php?bo_table=center_board≀_id=2078&page=6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ld=TX_117_2009_HB148&vw_cd=MT_ZTITLE&list_id=117_11750_002_00 노인에서 한국판 성격 5요인 책도의 표준화 및 타당도 - 김선영·김재민·유준안·배경열·김성완·양수진·신일선·윤진상 사회적 신뢰의 국가 간 비교 (연구보고서 2020-1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ld=TX_117_2009_HB148&vw_cd=MT_ZTITLE&list_id=117_11750_002_004&seqNo=⟨_mode=ko⟨_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1012001412 http://www.sigryang.com/news/articlePrint.html?idxno=2093 http://ltimes.kr/?p=26951 http://www.sijung.co.kr/news/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d=ART002603723 형제자매 관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 이현정, 조성연 https://www.newswire.co.kr/news/newsView.php?id=20200416021007	
결론 활용	https://www.jstor.org/stable/40064911 https://doi.org/10.1111/j.1744-6570.1999.tb00177.x https://doi.org/10.31219/osf.io/h7c6b https://doi.org/10.1177/0956797614551370 https://doi.org/10.1111/j.1745-6916.2007.00047.x 성격심리학의 Big 5 성격 이론 - 라웰의 심리학연구소 (espgarde.com)	42

THANK YOU